

중국 동북지역 역사기행 |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찾아가다(下)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지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백두(장백)폭포는 북으로 흘러가 토문강을 만들고, 토문강은 송화강의 상류가 되어 북으로 흘러 만주 땅을 동서로 가른다. 토문강과 송화강은 청과 조선 간 영토의 경계선이였다.

그런데 1910년 한일병탄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간도 땅을 청나라와 빅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1909년에 맺은 '간도협약'이다.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이긴 뒤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조선 전역에서 가혹한 수탈정책을 감행하자 우국지사들은 국내외에서 가열찬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그중에서 만주와 백두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조선독립군의 활약은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고, 일본군의 만주점령을 늦추는 효과를 거뒀다.

청사에 빛날 청산리 대첩

1920년대 만주지역에는 크고 작은 독립군 40여 부대가 활약하고 있었다. 간도에서 최초 일본군과의 전투는 두만강 하류 삼둔자(지금 용정 개산탄 일대)에서 일어났다. 두만강 건너 남양에 있던 일본군 수비대 1개 중대가 두만강을 건너 삼둔자에 잠입해 무고한 동포들을 학살하자 대한민군 박승길 소대가 강을 건너가 기습하여 큰 손실을 입혔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1920년 6월 7일, 화룡현 봉오골(지금 도문시 봉오동

저수지일대)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를 알아 채 독립군은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지휘를 받으며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하여 157명 사살, 300여 명의 중경상을 입혔다.

의병에 불과한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 대대를 완전 섬멸하자 충격을 받은 일본은 1920년 10월 2일 만주 비적들에게 훈춘 일본영사관을 습격하도록 사주(훈춘사건), 피해를 입은 것을 독립군의 소행이라며 3개 사단 2만 5천명을 동원하여 만주일대의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했다.

훈춘사건에 이어 일본군은 연변 일대에서는 1만여 명의 조선인들을 약탈한 수법으로 죽였으니 이른바 '경신대참변'이다. 당시 독립군은 중국의 요청에 의해 조금 안전한 백두산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뛰어난 기동력을 갖춘 일본군의 추격은 빨랐다. 하지만 그들은 독립군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1920년 10월 21일 백운평 지역에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에게 대패하여 300여 명이 사살 당했다. 어랑촌전투 또한 독립군의 뛰어난 업적이다.

어랑촌은 백두산 밀림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마을인데, 당시 일본군 5000여 명이 독립군진지를 공격해왔으나 600여 명에 불과한 독립군은 유리한 지형과 감투정신으로 일본군연대장 가노 대좌를 비롯하여 300여 명을 사살하고 수많은 일

본군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어랑촌전투 승리 후 독립군들은 북쪽 안도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맹개골, 만기구, 쉬구, 천보산, 고동하 지역에서 일본군들을 섬멸하였다. 이렇게 하여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6일만에 걸쳐 전개된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일러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

전승은 준비한 자에게 온다

청산리는 하나의 마을 이름이 아니라 독립군전사에 혁혁한 전공지로 기록됐다. 북로군정서의 정식 보고서에 의하면 청산리대첩에서 일본군 전사 1257명, 부상자는 약 2500명이다.

우리는 1965년 인구 250만의 이스라엘이 2억이 넘는 아랍과 싸워 이긴 '6일 전쟁'을 칭송하며 부러워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45년 앞서서 만주에서 일본 정규군 2만 5000명을 섬멸한 청산리 '6일 독립전쟁'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941회의 외침을 받았지만 불굴의 의지로 나라와 겨레를 지켰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국가안보에는 설마라는 단어는 곧 패전을 의미하며 패전은 곧 망국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은 분단되어 동족끼리 70년째 총을 맞고 있으나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반드시 통합의 계기가 오리라 믿는다.

김광태 | 고구려사 연구가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봉오동에 있는 봉오동 반일전적비

제16회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참가기

참가자들, 열띤 토론 통해 한층 더 성장하길

2017년 8월 9일,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친구의 "같이 할래?"라는 말 한마디로 정성껏 준비했던 토론대회는 우여곡절 끝에 전국 본선에 진출해 대상을 받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새내기로서의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2년 전 참가했던 대회의 심사위원 겸 사회자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반가운 마음이 너무 컸기에 망설임 없이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내심 설레기도 했다.

토론 당일, 2년 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던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에 도착했을 때 모두 반겨주셔서 대회 참가자였

을 때와 달리 매우 편안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편안하게 대해주시며 긴장을 풀어주는 덕분에 낯가림이 있는 나도 금방 웃을 수 있었다.

토론장에서 참가자가 아닌 심사위원의 시선에서 토론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중간중간 '나였다면 이렇게도 반박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고, '저렇게 답변할 수 있다니 참 토론 잘하는 친구다' 하는 생각도 했다.

결승전에는 심사위원이 아닌 사회자로 참여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열띤 토론을 펼치는 학생들을 보며 깨달았다. 알게 모르게 토론대회의 결승까지 참가함으로써 나도 참 많이 성장했다

는 것을. 또한 당시 나와 함께 토론했던 상대 팀들에게도 '더 많은 박수가 필요했겠다' 싶었다.

급하게 울산에서 서울로 와서 참여했던 행사였지만 많은 것을 배워가고,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내년에도 대회 우승자가 참석해 나처럼 많은 것을 배워가길 바란다. 그리고 참가했던 토론자들에게도 이 대회가



◇2017년도 우승자 박서지 학생(원 안)이 8월 8일 자유센터에서 개최된 제16회 토론대회 결승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박서지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